



이규환 / 정회원, (주)제노 건축사사무소
by Lee, Gyoo-Whan, KIRA

약력

- 한양대학교 건축공학과, 동대학 대학원 건축공학과 졸업
- 2000 문화연대 도시건축네트워크 운영위원
- 2003~2006 협회발전위원회, 홍보위원회 위원
- 2006~2007 한국건축산업대전(KAFF) 전시위원회 전문위원

‘한국건축산업대전 2008’에 대한 소감

Opinion about KAFF 2008

산업전시회를 규모에 따른 분류와 기간에 따른 분류로 나누어 보곤 하는데 첫째, 규모에 따른 분류는 소규모전시회와 중규모전시회 및 대규모전시회 그리고 초대규모전시회 등 4종류로 나눌 수 있고, 기간에 따른 분류는 1단계전시(1~3년), 2단계전시(4~5년) 및 3단계 전시(6~8년)와 4단계전시(9~10년 이상) 등으로 나누어 생각해 볼 수 있다. 이 방법은 전시기획에 있어서 거의 공통된 분류법이긴 하지만 규모의 적용에 있어서는 각 나라마다 다소 변화를 갖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가장 사용빈도가 높은 특정 전시장의 규모를 통한 연구가 이루어진 상태로서 소규모전시회는 약 5,000㎡~8,000㎡ 미만, 중규모전시회는 8,000㎡~15,000㎡ 미만, 대규모 전시회는 15,000㎡~30,000㎡ 미만 규모이고 마지막 초대규모전시회가 30,000㎡ 이상으로 분류된다.

이 분류법을 개발한 이유는 각각의 전시회가 나가야 하는 방향을 제안하기 위한 것으로 소규모전시회는 주로 신생전시회에 해당하며 중규모전시회로 진입하기 위한 준비단계에 속하게 된다. 기간은 보통 첫 전시회를 개최한 후 3년을 전후하여 중규모전시회로 진입하여야 하며 그 기간 동안은 단순히 규모만 확장하는 것이 아니라 전시회의 성격도 보다 명확하게 나타내 주어야 한다. 만일 이 기간동안 전시회의 성격을 나타낼 수 없다면 전시회의 목적 및 성격을 조정하거나 아니면 지속적인 개최에 대해서 의문을 품어 보아야 한다. 그래서 산업전시회를 기획하는 사람들이 개최 3년에서 5년의 기간동안 이루어진 성과를 매우 중요하게 취급하는 이유가 이 때문이다.

그럼 한국건축산업대전은 어느 위치에 와 있을까? 지난 10월7일부터 5일간의 진행으로 3회 전시회를 개최하였으며, 규모에 있어서는 약 8,000㎡의 전시장을 사용하였다. 규모에 있어서는 중규모전시의 초입에 들어왔으며 기간에 따른 분류를 보면 2단계 전시의 시작점이라 할 수가 있다. 그렇다면 과연 전시목적과 성격도 제 위치를 찾은 상태라고 자신할 수 있을까? 건축산업에 대한 바른 이해와 대국민 홍보, 건축전문가들 간의 건축산업네트워크 구축, 건축문화산업 기술력 강화 및 정보교류 촉진 그리고 국내외 새로운 시장개척 및 활성화 지원 등 전시회가 내세운 공공적인 목적은 물론 협회 자체의 목적인 ‘수익과 홍보 그리고 축제’를 충분히 달성한 전시회라고 할 수 있을까? 이에 대한 판단을 위해서는 이번 전시회에 대한 정보를 조금 더 공유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다.

먼저 제3회 한국건축산업대전은 2가지 새로운 시도가 있었다.

하나는 방송사와의 공동주최였고, 다른 하나는 전시사무국 만으로 전시회 준비를 시작한 점이다. 언뜻 보기에는 바람직한 시도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 내막을 살펴보면 새로운 시도가 꼭 성공을 하였다고는 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 그 중 방송사와의 공동주최는 그들의 인지도와 전시개최 경험 및 실행능력과 의지 등을 면밀히 검증하여 그에 걸맞는 역할을 배분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단지 방송의 가능성을 너무 믿고 공동주최라는 브랜드의 가치를 너무 쉽게 배분해 주는 오류를 범했던 것이다. 그 결과 전시규모를 비롯한 다양한 부분에서 초기에 기대했던 계획들을 변경해야 하는 혼란이 빚어지기도 했으며 상호간

제3회 한국건축산업대전을 단순히
 성공과 실패라는 단답식 낱말로는 표현할 수 없을 것 같다.
 부분적으로는 여전히 아쉬운 점이 많이 있지만
 또한 다른 부분에서는 소중한 가치들도 많이 드러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전시회는 자연스럽게 4~5년차에 접어들고 있다.
 어쩌면 전시회의 최종 존폐여부를 가려야 할 중요한 시기가 될 지도 모르겠다.
 그리고 이것은 어쩌면 건축전문가인 우리들의 발전 가능성도
 함께 실험해 보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의 신뢰 구축에 역효과를 낸 부분도 없지 않다는 생각이다. 향후 보다 발전적이고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서로의 역할에 대한 새로운 논의를 시작할 필요가 있다.

두 번째로 전시사무국의 노력으로 전시회 개최 준비를 시도한 것은 앞으로 반드시 가야할 방법이지만 내용에 있어서는 중요한 부분을 누락시키는 오류를 범하고 말았다. 즉, 산업전시회를 개최하기 위해서는 전시주최 책임자와 전시기획자 그리고 전시준비와 진행을 담당하는 사무국이 구성되어 각자의 역할을 충실히 해내야 하는 것이다. 전시주최자인 협회 집행부의 관심과 노력, 전시기획자인 운영위원회와 큐레이터의 참신한 아이디어 개발과 발전방향 제시, 그리고 전시사무국의 헌신적인 노력이 함께 어우러질 때 목적하는 전시회로 한 단계씩 발전시켜 갈 수 있는 것이다. 다양한 외부적인 변화 요인에 흔들림 없이 일관되게 진행할 수 있는 구성이 필요하다는 것이지 사무처 직원의 노력만으로 전시회를 진행할 수 있다는 것이 아니다. 그런데 이번 전시회는 이 부분에 있어 많은 실수들을 범하였고, 뒤늦게 부분적인 보완을 하기는 하였으나 전시회 충실도 면에서는 이미 많은 허점을 보일 수 밖에 없었으며 직원들 또한 심한 고생을 해야만 했다. 이 역시 시급히 보완해야 할 부분이다.

한편 앞선 2가지의 다소 부정적인 측면에도 불구하고 긍정적인 가능성을 발견한 부분도 적지 않았다. 이 부분도 2가지만 소개한다면 첫째 전시회에 대한 회원들의 관심과 정성이 예년에 비하여 훨씬 높았다는 점이다. 이른 새벽부터 전시장으로 출발하신 회원님이 계신 가 하면, 어느 지역건축사회에서는 전체 회원수의 90%가 넘는 참석율을 보이며 하나된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시려 노력하였다는 점이다. 전시품들을 꼼꼼이 살펴보고 강연회에 열의를 갖고 참석하시는 모습들을 보면서, 전시회가 보다 발전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느낄 수 있었다. 이는 제3회 전시회를 통해서 얻은 가장 큰 수확이라 할 수 있다.

두 번째의 긍정적인 발견은 전시회의 성격이 어느 정도 드러나고 있음을 느낄 수 있었던 것이다. 한국건축산업대전은 애초부터 관람객을 많이 모으는 대중전시회가 아닌, 전문가와 대중이 함께 어우러지는 전문전시회임을 표방하며 만들어 졌었다. 그런데 이러한 노력이 3회를 맞으면서 어느 정도 인정되고 있음을 깨닫게 된 것이다. 물론 아직도 많은 관람객을 원하는 참가사가 있기는 했지만 1회와 2회에 비해서 훨씬 많은 참가사들이 안정된 분위기에서 전문가들과 상담하는 전시회를 원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 또한 이번 전시회에서 얻은 소중한 수확이라 할 수 있다.

제3회 한국건축산업대전을 단순히 성공과 실패라는 단답식 낱말로는 표현할 수 없을 것 같다. 부분적으로는 여전히 아쉬운 점이 많이 있지만 또한 다른 부분에서는 소중한 가치들도 많이 드러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전시회는 자연스럽게 4~5년차에 접어들고 있다. 어쩌면 전시회의 최종 존폐여부를 가려야 할 중요한 시기가 될 지도 모르겠다. 그리고 이것은 어쩌면 건축전문가인 우리들의 발전 가능성도 함께 실험해 보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어느 전시회나 내면에 담긴 가장 큰 목적이 '단합' 임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단합'을 통해서 전시회가 성공하던, 아니면 전시회 성공을 통해서 '단합'을 이루던 우리는 분명 앞으로 몇 번의 전시회를 통해서 우리의 발전 가능성을 함께 살펴 볼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을 맞게 될 것이다.

건축계의 발전과 단합을 위한 소중한 시간, 한국건축산업대전이 그 시간을 함께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